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주일, 수요일, 토요일 예배 말씀 성경
 주일 - 고린도전서
 수요일 - 시편(시편 6편)
 토요일 - 빌립보서
-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흠뻑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및 아시안 혐오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4/25		김유신		
05/02	정경학	송명건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20절 제목: 영으로 몸으로

- 기도제목: 1.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몸의 신비를 알게 하소서.
 2.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행을 피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는 처음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역의 도시답게 돈이 넘쳐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음행은 항상 세트로 함께 갑니다. 고린도에는 특히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수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고린도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교인을 가운데서도 음행에 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이 워낙 음란한 문화가 넘쳐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몸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18절) 적극적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도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전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전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음행을 권하는 자들과 만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자들과는 멀찍이 떨어져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오늘날 음행의 문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가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수준이 낮고 음란하죠! 그런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막장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3.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른 값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과 내가 비교가 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같은 값으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황송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몸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4. 신앙생활에서의 몸의 중요성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말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본인은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말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믿음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년 가까이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직접 해 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 하도다' 예수님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나가는 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진정한 성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 송영 Invocation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 찬 송 Hym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찬 송 Hymn	기 도(Prayer)	성 경 Scripture	설 교 Message	▲ 찬 송 Hymn	▲ 축 도 Benediction	교회소식 Announcemen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회자	다같이 Together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 Apostles' Creed	15번 (시편 51편)	358장(아침해가 돋을 때)	1부: 안영남 권사 2부: 김유신 집사	고린도전서 6장 12~20절	영으로 몸으로	427장(내가 매일 기쁘게)	정요한 목사	인도자
		경배와 찬양		시편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시편 6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새벽기도회		빌립보서 강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